

출장 결과 보고서

○ 해외출장 주요 목적

- 중국의 채소 생산, 유통, 정책, 수출입 실태 및 업무협의회

○ 주요 일정:

- 기간: 2007. 6.18~21(2박 4일)
- 6월 18일(월): 산둥성 농촌경제연구소 업무협의회
- 6월 19일(화): 고추/당근 생산지역 방문, aT 센터 업무협의회
- 6월 20~21일(수,목): 마늘, 양파 생산량 및 김치 생산업체 조사
청도→ 인천항(여객선으로 귀국 18시간 소요)

○ 세부 일정:

	이동사항	방문처	주요내용 및 면담자
6월18일	인천→제남 11:55→12:30 (CA)	농촌경제연구소 (업무협의회)	- 농촌경제연구소: 진경무소장, 요동방, 립홍 - 산둥성통계국 농촌처: 강서해 처장 - 고추 생산 및 유통 전문가: 양결 - 당근 생산 및 유통 전문가: 류결
6월19일	제남→청도	수광, 청도	- 고추 작황 및 재배면적의 변화 - 당근 출하 및 수출량 변화 - 중국서점 통계자료수집
		aT 센터 (업무협의회)	- aT 센터: 성시찬 소장 - 양파 생산 및 유통 전문가: 송기률 - 마늘 생산 및 유통 전문가: 손홍준 - 김치 생산 및 유통 전문가: 이기영, 권정화
6월20~ 21일	청도→인천항 (16:00→익일 10:00 도착)	파이공의 실태	- 파이공의 품목별 거래현황
			- 여객선 이동 및 파이공 실태

조사 및 업무회의 내용

□ 1차 업무회의

- 장 소: 산동성사회과학원 회의실
- 시 간: 2007년 6월 18일 15:00~17:30
- 참가자:
 - 진경무: 농촌경제연구소 소장
 - 요동방: 산동성사회과학원 외사처 처장
 - 림 홍: 산동성동아연구소 소장
 - 강서해: 산동성통계국 농촌처 처장
 - 양 결: 산동료성통대수출입유한회사 총경리
 - 류 결: 산동료성통대수출입유한회사 경리
 - 연구진: 김연중, 리경호

□ 2차 업무회의

- 장 소: 청도aT사무소 회의실
- 시 간: 2007년 6월 19일 16:00~18:00
- 참가자:
 - 성시찬: 청도aT사무소 수석대표
 - 송기륜: 청도스카이식품유한회사사장
 - 손홍준: 선봉실업유한회사 업무경리
 - 이기영: 진성화학(중국)유한회사사장
 - 권정화: 진성화학(중국)유한회사경리
 - 연구진: 김연중, 리경호

□ 출장결과

1. 중국의 농업정책

- 산둥성의 농산업 구조조정은 채소산업발전 정책으로 전환
 - 식량의 1무당 소득은 200위안~1,000위안 정도이고, 채소(노지)의 1무당 소득은 2,000위안~5,000위안 정도, 시설채소의 1무당 소득은 1만위안~2만위안 정도임. 산둥성은 농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집약형 채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중국의 주요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

단위: 위안/무

식량작물	채소(노지)	채소(시설)
200~1,000	2,000~5,000	10,000~20,000

- 품질제고를 위해 농산물 검사시스템 강화
 - 품질제고를 위해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예하면 각 현에 농산물검사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 정보의 량과 정보서비스의 부족은 채소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되고 있음.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생산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통계보다 집산지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임.

2. 고추

- 중국의 고추 생산은 내수가 늘고 있고, 수출이 증가
 - 대한민국 수출도 증가하지만 고품질의 것은 대일본 수출도 증가하고 있음. 대일본 수출 품종은 조천초와 익도초임.
- 고추의 수출수요 중 산업용 색소 생산을 위한 원료용임.
 - 고추에서 추출한 색소는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음. 고추 색소는 식품, 의약품, 무공해 페인트, 립스틱 등등에 다양하게 사용됨.
 - 이로 인해 1994년부터 고추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격도 급상승하여 1992년의 0.90위안/kg에서 1994년의 1.75~2.50위안/kg이었고, 1995년에도 고추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색소용 원료로

수요가 증가하였고 특히 일본에서는 중국의 고추색소용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음.

- 대한민국 고추 수출가격은 안정세이며, 냉동고추의 형태로 수출
 - 한국은 1997년 한국의 IMF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건고추의 대한민국 수출은 주춤하면서 상승세를 타던 수출 가격이 1998년과 1999년을 거치면서 그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대한민국 관세, 가격, 등의 영향으로 신선냉동 형태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음.
- 중국의 고추 주산지는 노동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
 - 산둥성의 고추재배는, 주산지가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재배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농들은 현지의 노동력의 부족으로 노동력이 보다 풍부한 내몽고, 신장, 길림성 등으로 주산지가 변동하고 있음. 산둥성 전체 고추 재배면적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산둥성 이북 타 성의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고추의 품종은 익도산, 중국고유품종이 주임.
 - 길림성에서는 익도산 등이 재배되고 있고 내몽고에서는 익도산과 중국 품종 그리고 그 중간 품종 등이 재배되고 있음.
 - 중국의 고유품종은 1) 익도초 2) 왕도 3) 지령이초 4) 얼진초 5) 조천초 6) 삼각형 조천초 7) 운남초 8) 첩초 9) 감숙초임.
- 중국산 고추 가격변화는 중국 내부 수급문제에 영향이 크지 대한민국 수출여건에 따라 가격변화는 미미함.
 - 고추는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음. 중국이 기후, 작황 그리고 작목전환 등으로 고추 수급이 달라져 가격의 드락이 결정되는 것이 큼. 대한민국 수출여건변화는 중국 고추시장의 수급변화에 큰 영향은 없음.

3. 마늘

- 산동성에는 예로부터 ‘3랄(辣)’로 알려진 3가지의 농산물이 있음.
 - 고추, 마늘, 생강이 바로 그것임.
- 산동성 내부에서 주산지가 확대되고 있음.
 - 마늘은 산동성의 많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많은 주산지가 이루어져 있음. 과거에는 창산과 금향이 주산지였음. 그러나 지금은 창산, 금향, 제녕, 태안, 료성 등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산동성의 마늘 재배면적은 23만 6천ha 정도이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최대 15%의 변화폭이 있음.
 - 마늘 주산지는 산동성 이외의 강소성, 하남성 등으로 확대 되고 있음.
- 마늘 품종은 잡교개량마늘이 80%를 차지
 - 주요 마늘 재배품종으로는 하드 계열인 창산마늘과 소프트 계열인 잡교개량마늘이 있음. 창산마늘은 당분이 높아 다진마늘로 많이 가공되고, 산동성 마늘 생산량의 80%는 잡교개량마늘임.
- 중국의 마늘 수출가격은 상승하고 있음.
 - 마늘의 수출가격 상승은 환율문제(인민폐의 가치 절상)
 -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원가) 부담 증가
- 산동성의 안전 농산물 수출을 위한 정책
 - 산동성품질기술감독국은 마늘의 ‘수출안전기술규범’(2007.4.1실행)을 제정·실행하면서 수출 대상국과의 기술장벽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4. 당근

- 당근 주산지인 수광지역의 재배면적 및 가격
 - 수광지역 당근 재배면적은 약 2만 6,000ha 정도로 올해 봄당근의 경우 겨울 추위로 인해 생산량이 다소 부진한 편임.
 - 현재 가을당근 파종면적은 봄당근보다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작년 가을당근보다는 10~20% 재배면적 감소 전망

- 현재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1,700元으로 작년 봄, 가을보다 톤당 20달러 정도 상승하였으나 작황 부진으로 품질은 좋지 않은 편임.
- 잦은 강우로 금년 당근 품질이 좋지 않은데도 산지수매가격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당근의 품질은 떨어졌어도 그 중 가공이 가능한 상품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 작년 전체 생산량중 상품비중이 80%였으나 금년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내수용 당근 가격은 톤당 600~700元으로 작년보다 다소 높은 편임. 봄에는 물량부족으로 내수판매가격이 톤당 1,400~1,500元선까지 올라가기도 하였음.

○ 중국의 당근 계절별 주산지

- 중국 당근재배면적은 내몽고와 산둥지역이 비슷한 수준이고, 하북성이 두 지역보다 약간 적은 편
- 지역별 생산시기는 산둥성 봄당근이 1월에 파종하여 5월부터 수확 및 출하가 이루어지며, 이후 하북성·내몽고의 고랭지 당근, 다시 10월 중순부터는 산둥성 당근의 출하가 다시 이루어짐.

○ 중국의 대한국 당근 수출량은 통관심사 강화로 감소

- 대상 당근 가공공장의 규모는 원료 당근 45톤에서 가공량은 35톤 수준으로 작년보다 각각 5톤씩 증가하였으며, 현재도 공장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실정임.
- 이 업체의 봄당근 수출량은 약 400톤 규모이며, 산둥지역 당근업체의 총 수출량은 4,000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가을당근의 수출량도 봄당근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수출시기는 봄당근이 5월말에서 6월 중순까지, 가을당근의 경우는 10월 20일~12월 중순까지가 대부분임.
- 작년 수출가격은 톤당 2,400~2,500元이었으나 금년은 1,900元 수준으로 작년보다 낮아 수출량이 작년보다 적은 편임.
- 수출가능한 손익 분기가격은 톤당 1800元 정도이며 통상 일본은 한국 수출가격보다 20달러 정도 높은 편임.
- 현재 한국 관세청의 수출통관시 저가신고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수출가격이 톤당 480달러 이하가 되면 저가신고 대상이 되어 저가 수출이 불가능하여 수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임.

- 한국으로의 수출량 줄어드는 원인은 관세청의 통관심사 강화도 있겠으나, 한국으로의 판매가격이 비교적 높지 않은 반면, 상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임.



<수광시 당근밭 전경>



<한국 바이어 납품용 상자>



<당근 박스 내>

5. 김치

- 중국의 김치 가공 및 수출은 OEM방식
 - 현재 5개 업체의 한국 바이어와 OEM방식으로 거래 중이며 규모는 청도내 김치공장 중 중급규모로 공장은 98년도에 설립, 한국의 김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산동성 내의 김치공장은 한국 소비자 입맛에 맞도록 가공
 - 평도 내 15개 김치가공공장이 있으며 이 중 한국업체는 3~4개소로 비교적 청결한 가공공정을 유지하고 있음.

- 배추종자는 점차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생산원가는 kg당 500원 수준이며 현재는 하북지역의 고랭지 배추로 김치를 생산하고 있음.
- 주 양념재료인 고추의 경우 금탑과 익도산 고추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김치에는 대부분 금탑 품종이 이용됨. 특히 한지형 마늘을 김치 양념으로 사용하여 중국 특유의 향을 제거하고 있어 비교적 많은 노하우를 가진 업체라고 판단됨.

○ 중국산 김치는 품질에 문제가 있음.

- 첫째, 중국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배추 생육시 문제
- 둘째, 염장시 젖갈류 오염
- 셋째, 양념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고추에서 발생하는 납성분 오염



<절임배추>



<김치가공 공정>

6. 통계

○ 한국과 같이 통계가 과학적이지 못함.

- 농산물 재배면적의 통계는 각급 지방 정부와 기층조직에서 실제면적을 보고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의 통계방식과는 많이 다름.
- 중국의 현재 통계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이고 시장에 대한 서비스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통계는 정보화 정도가 낙후하고 신속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7. 청도항-인천항 사이의 ‘파이공’ 무역

○ 파이공의 실태

- 보따리상의 일명으로 큰 여행용가방에 농산물을 채워 이동
- 한국의 약세사리, 옥돌 등 공산품,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가서 판 돈으로 농산물 구입
- 항구의 여객터미널 인근의 상점밀집지역에 있는 중국 농산물 상점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반입
- 주로 건고추, 참기름, 참깨, 검정콩, 흑미, 참쌀 등 농산물
- 1인당 1년 동안 100번 정도 농산물을 반입해 감.

○ 반입규정:

- 한 사람이 품목당 5kg, 전체 50kg 이내에서 휴대가능
- 파이공들이 반입하는 농산물은 ‘여행자맞춤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란 규정에 의해 휴대품으로 관리되고 있음. 본 규정에는 보따리상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무

○ 파이공의 농산물 구매처

- 청도항의 여객터미널 인근 상점밀집지역에 도매상가 비슷한, 파이공들을 위한 전문 점포로서 **물산 등 이름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표기한 간판을 게시하고 있고 한국어로 된 ‘중국농산물’ 등과 같은 상품광고판을 달고 있음.
- 박스와 테이프로 포장을 해주고 통관 요령까지 자세히 알려주며 구매한 영수증도 챙겨줌.
- 전문적인 파이공이 아닌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음.

○ 파이공의 농산물 구매 및 판매가격

- 중국에서 4개품목 16kg을 구입한 금액은 360위안(46,800원)임. 이를 한국에서 87,000원에 판매함. 평균 이윤율은 46.2%로 반절 남음.
- 이윤율이 높은 농산물은 건고추가 50%, 참기름, 참깨, 검정콩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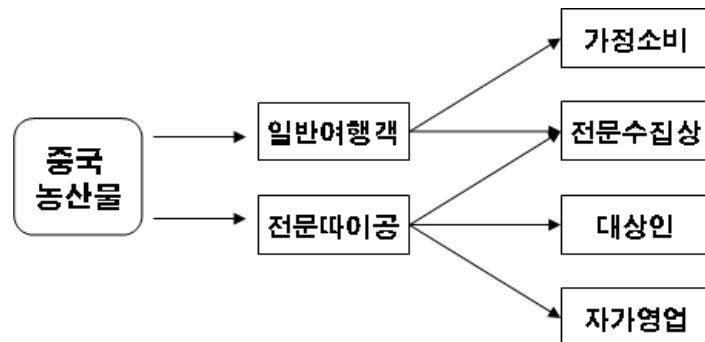
	중국 구입가격	국내 판매가격	이윤율
건고추	110위안/5kg (14,300원)	28,500원	49.8
참기름	150위안/1kg (19,500원)	35,500원	45.1
참깨	70위안/5kg (9,100원)	16,000원	43.1
검정콩	30위안/5kg (3,900원)	7,000원	44.3
계	360위안 (46,800원)	87,000원	46.2

자료: 현지조사자료. 2007.6.20-21

○ 중국산 농산물 판매경로

-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로는 일반여행객이 구입하는 경우와 전문 파이공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 일반 여행객은 자가소비 또는 전문수집상에게 판매
- 전문 파이공은 전문수집상, 대상인, 자가영업으로 판매함.

그림 중국 농산물의 파이공에 의한 유통경로



○ 중국산 농산물 반입에 대한 시사점

- 여행객이 자가소비나 전문 수집상에게 판매할 때는 반절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있으나, 전문 파이공의 경우 구매가격도 낮고, 판매가격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여행객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산 농산물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수입되는 양은 많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중국에의 연태, 청도, 대련 등으로부터 인천, 평택, 군산 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횡수와 평균 일반객, 파이공 수를 고려하여 수입량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서 건고추 1kg에 2,860원에 구입하여 전문상인에게 5,700원에

판매하면, 50% 이상의 이윤 발생. 그러나 중국산 고추의 국내 도매가격이 약9,000/kg원이며, 소매가격은 1만원 이상이므로 중국산 고추를 중국에서 직접 구입하여 국내에 소매로 직접 판매 한다면, 4배 이상의 이윤 발생 가능함. 이윤이 크게 발생함으로서 제도적인 접근이 없다면 타이공은 계속 존속 가능함.